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역사나눔2-2

재독 한인동포들의 살아오고, 살아가는 이야기

최정규 | 한민족유럽연대 대외협력부장

실천적 사례를 중심으로

과독한인노동자 (광부, 간호사)가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투쟁과 실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먼저 재독한인동포들이 자기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고 확보하는 투쟁 속에서 정치사회적 의식으로 전환시켜 갔던 일, 그리고 국제연대투쟁으로 다국적 자본을 이겨낸 실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 투쟁사례

- 광부들의 투쟁

사례 1) 독일에서 한인광부들의 투쟁 이야기

1970년 9월경 서독 아헨(Aachen)에 있는 에밀마이리쉬(Emil-Mayrisch)광산에서 일하던 한인광부 73명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광산노동은 커녕 육체노동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젊음의 패기로 독일 사람들도 위험하고 힘들어 싫어하는 1000미터 지하광산 막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봉급이 독일 사람들과의 부당하게 차별되어 지급되고, 건강상 힘들어 일할 수 없음을 호소하며 다른 작업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일하기 싫으면 「한국으로 가라!」 고 쏘아붙이는 등 마이스터(Meister)나, 항장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14항의 낮반 나가는 12명의 한인광부는 항의하기 시작했다.

첫째: 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추가지불을 할 것

둘째: 각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자리를 배치할 것

셋째: 한국인을 모욕하는 언사와 폭행을 즉시 중지할 것

이상과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12명이 연대 서명하여 광산통역을 통해 번역하여 광산소장에서 제출하였으나, 일주일도 지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광산 측으로부터 없자 14항의 12명은 이제 행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입항하지 않고, 기숙사로 돌아오자 14항은 채탄이 중지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광산소장은 통역을 통하여 만일 한인광부 12명이 늦게라도 입

항을 하지 않으면 즉각 해고할 것이며, 당장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통고하여 왔다. 그러자 한국인 광부들은 분노하여 12명뿐 아니라 73명 전체가 집단적인 행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인 광부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관철되느냐 아니면 12명이 해고당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느냐 팽팽한 긴장되어졌다. 그러나 계속 입항을 거부하자 해고협박에 입항할 줄 알았던 광산 측은 당황하는 것 같았다.

1964년 이래로 많은 한국인 광부들이 에밀마이리쉬광산에 와서 3년의 계약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집단적인 입항거부 소위 불법파업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태가 이쯤 이르자 광산 측의 제의에 광산 측, 광산노동자평의회(Betriebsrat), 한인광부 73명이 참석한 조정회의가 열렸으며, 광산소장은 태도를 누그러트리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앞으로 잘 참작 할 것이며, 오늘 전원이 입항해서 일을 하면 12명에 대한 해고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소장의 말을 통역하던 광산통역은 우리들에게 제발 입항하라고 호소하듯 하자 73명의 한인광부들은 동요되기 시작하며, 다행히 12명이 강제귀국은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일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입항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자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14항의 12명은 광산 측이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준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자? ?요구를 하자, 두개의 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하였다. 그러자 우리들의 분열된 모습에 만족했는지 광산 측은 퇴장해버렸다. 우리들은 장시간 토론을 계속하여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을 같이한다는 결정을 했다.

다음날 주독한국대사관에서 3명, 광산 측, 그리고 우리 73명이 참석하여 조정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런데 이날은 대사관측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설득만 하였다. 수석노무관은 왜? 우리가 독일에 왔으며, 우리들의 집단행동(파업)은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조국의 이익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겁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독한국대사관의 노무관 말에 우리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산산이 깨지면서, 일방적인 대사관의 태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국대사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야? 독일 광산주 편인가?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고 항의하는 한인광부들 편인가? 따지면서 울고 말았다. 이국땅에서 우리들을 지켜줄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일했던 한인광부들은 조국도 우리를 버리는 것만 같아서 설움과 분노를 씹으며 더욱 단결하여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 되어 해고된 한인광부가 전원 복직되었고, 부당하게 체불된 임금도 추가 지불 받았으며, 한국인을 모욕하는 언행과 폭행은 없어졌다.

가진 것이라고는 빈주먹밖에 없는 우리노동자들도 뽕뽕 뭉치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광산업주와 지원은 커녕 탄압하는 조국정부도 이길 수 있음을 배웠다.

2. 국제연대투쟁

사례 2) 연대투쟁 이야기

후레어 헛손은 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아들러(Adler)가 한국에 투자한 공장이었다.

독일기업주와 관리자들이 한국에 진출해 노동기본권을 어기고 온갖 술수로 분열과 노조과

괴를 일삼은 현실(물론 자국민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을 주예희(파독간호사출신으로 국내운동을 하고자 귀국해서 활동하고 있었다.)씨가 1986년 5월 4일 편지로 재독한국 여성모임(파독한국간호사, 유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 이하 여성모임) 앞으로 날아왔다. 여성모임을 중심으로 독일의 다양한 단체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행사와 집회에 참여하여 알리고, 공동항의투쟁을 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투쟁이 전독일의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사건이 터졌다.

후레어 헛손의 본사인 아들러는 독일에 큰 도시에 드레스 등을 파는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1987년 8월 15일 8개의 백화점에 폭탄에 의한 방화사건이 터진 것이다.

백화점에 폭탄으로 방화한 조직은 '로테 초라(Roten Zora)"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혁명적 여성단체이다.)

로테 초라는 '타오르는 불길의 인사' 라는 성명서에서

- 제3세계지역 및 특히 한국과 스리랑카에 거점을 둔 아들러생산공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및 노동조건 아래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유인물이나 아들러백화점 앞에서 있었던 시위 및 홍보활동을 통해 이미 주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제국주의에 대한 실제적인 경고이다.

우리는 이 인기좋은 덤핑백화점을 모르는 채 간과해 지나갈 수 없다.

1987년 8월 15일 우리들에 의해 9개의 지점이 불길에 휩싸였다.(1곳이 터지지 않음.)

우리는 성유린 및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에 대항 해 우리의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연대투쟁과 로테초라의 혁명적 투쟁에 후레어 헛손 본사인 아들러(Adler) 본사는 굴복하고 말았다. 방화사고 이후 파업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 유럽의 한인동포들의 만남의 축제

- 재유럽오월민중제

재유럽오월민중제 역사

1980년 5월 유채꽃이 들녘에 한들거리며 향기롭게 바람결에 나뭇길때 독일 텔레비전방송에 속보로 전두환 군부에 의해 광주시민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되었다.

무장한 군인들의 곤봉에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청년학생의 모습.

쓰러져 엎져있는 청년학생을 전기줄같은 것으로 목을감아 당기면서 등을 군화발로 밟고 조이는 모습.

죽었는지 실신했는지 모를 청년학생을 군이들이 발을 잡고 아스팔트위로 끌고가는 모습.

광주시민대학살이 특보뉴스로 온세상에 퍼지는 소식을 접한 재독한인동포들은 것잡을수 없는 분노와 좌절에 울면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중심으로 단식과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80년 그 해 5월 유럽은 한인동포들이 사는곳이면 어디에서나 동포들이 모여서 학살만행에 분노하며 입장(성명)을 발표하거나 광주소식을 번역작업과 선전지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행동을 취했다.

프랑크푸르트 교민들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본뒤 곧바로 시내 중심지에 있는 Alt Nikolai 교회에 모여 민주단체회원들과 함께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광주시민에 연대하는 한국인 모임'을 만들어 홍보자료를 만들어(삭제, 한 문장에 두번이나 "만들어'가 들어가기 때문) 배포했다.

루르지역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한인교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회와 시위하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후에는 토요일기도회를 만들어서 연대운동을 해 갔다.

청년학생들도 쾰팅겐, 마부르크, 튀빙엔, 복흠 등의 대학도시에서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동포들과 함께 투쟁했다. 뮌헨과 에센의 대학에서는 독일기독교학생회를 통해 자료집을 독일어로 발간해 배포했다.

베를린 지역에서는 한독친선회를 조직 독일 교회측과 긴밀한 연대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 5월 28일부터 베를린 공대 기독학생회관에서 학생, 동포들의 항의 단식투쟁
- 5월 30일 "투쟁하는 광주 시민과 연대하는 데모 및 학살 성토대회"
- 독일내 종교계와 정치사회계의 지도급 인사들에 호소문 발송
- 서명운동 전개 : 항의시위와 때마침 6월 4일 -8일사이 개최된 천주교대회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만명 이상 확보, 이 서명을 공증받아 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각계 저명인사와 언론사에 보내졌다.

이어 한독친선회는 7월 10일 저녁 7시부터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한국문제 연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독일 기독교협의회 전 회장 샤프(K. Scharf) 주교. 한독연대위원회 회장 프로이텐베르크(G. Freudenberg) 교수. 슈피겔지 아시아지역 담당 볼프 퀴스터 기자. 참여했다.

80년 당시 독일 각 지역에서는 다른 해외 어느 지역보다도 발빠른 대응을 취했고 많은 홍보활동으로 독일 전역에 신속히 광주문제를 알렸다. 이후 해마다 5월이면 쉬지 않고 단체와 지역별로 연대하여 추모식을 치러오다가 87년부터 오월민중제는 현재의 틀을 갖추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오월민중제라는 이름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광주의거, 광주민중봉기, 광주민주화투쟁 등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횡수가 거듭되면서 단순히 추모하며 광주 항쟁정신

을 기리는 외에도 유럽지역에서 연대활동들이 모색된 것도 이 장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84년 11월 뷔퍼탈에서 '전태일 한풀이 마당극'을 강연과 마당극으로 준비하여 15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그 다음해인 85년도 전독일의 한국관계일꾼들이 1여년간 준비하여 11월 '갑오농민동학제'를 개최, 400여명이 참석하여 2박3일간 강연과 토론, 공연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갑오농민동학제에서 공연된 연극 '금강'(홍세화 연출)은 출연진만 60여명이나 됐다.

80년 초부터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민중문화운동이 민주화운동에 결합되어지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85년이후부터는 전유럽의 한인동포들이 모여 '재유럽오월민중제'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제 유럽오월민중제는 유럽의 민주한인동포들에게는 마치 고향에 명절처럼 오월이 되면 유채꽃이 만발하는 민중제행사장이 있는 빌레펠트로 온가족들이 오는 만남의 축제가 되었다.



매년 민중제에는 참석률이 1세대가 60%, 2세 청년학생이 40% 참석하여 공동추모제와 각각 세미나를 2박 3일간 진행하고 있다.



25 주년을 맞아 '오월에서 ~ 통일로 !'라는 주제로 올해도 150여명이 참석하여 강연과 토론을 하고, 민중의 한을 이루진 평등한 세상 기념극 '판굿' '얼씨구 세상'을 함께 했다.

그간 오월민중제를 한번씩이라도 함께했던 단체들은 도합 13개,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코리아협의회(Korea-Komitee, Korea-Verband), 재독한인노동자 연맹, 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국민중문화모임,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백림노동교실, 기층민중과 연대하는 모임, 유럽민주민족협의회, 한민련유럽본부, 범민련유럽본부, 재독동포협력회, 민주노동당유럽지역위원회 등이다.

3.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 한국민중문화모임을

- 77년부터 복음한인교회의 교인들이 학습과 토론회를 시작하다가 부당해고당한 파독광부의 사례를 연극으로 올리게 되면서 문화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78년 광산에서 작업중 허리를 다쳐서 병가를 장기간 끊었다가 광산지정의사가 "향수병"이라는 진단을 내리자 해고당한 한 광부의 이야기를 실은 연극'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Was

soll ich tun) 를 공연하였다. 교인들과 노동자들의 성황으로 다음해인 79년에는 한국노동운동탄압사례인 청계피복노조원들의 구속재판과정을 구사하여 '제 7일째 되는날'을 연극으로 올렸다. 이런 결과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한마음조합'이 결성되어서 협동조합형식으로 운영되다가 80년 광주민중학살후에 교회밖으로 한인동포운동사회로 뛰기 시작한다.

우리전통문화 풍물패 '두레'를 만들어서 풍물을 배우고, 82년 한국에서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가 창립되자 83년 11월 전태일기념관건립 유럽지부 창립준비위를 구성하여 84년 전태일열사 14주기 추모회를 주최하였다.

이러한 열기가 전독일에 퍼지면서 앞에 소개한 85년 갑오동학농민제에 이르게 되며 이는 유럽민주운동의 전성기를 장식했다.

1986년 이런 활동으로 루르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마음조합과 풍물패두레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민중문화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지역에서는 주간 한국민중문화학교등을 운영하여 민중문화보급에 힘쓰며 한국문화의 밤을 주최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입양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행사를 함으로서 부모들과 입양아들에게 우리문화를 소개했다.

자체관곳으로 98년부터 독일아리랑행사를 주최하여 주간 한국문화학교열어 운영하고, 35



여년동안 유명을 달리한 한인동포들의 넋을 추모하는 추모극 '다시라기'를 올렸고, 99년 독일아리랑 행사에서도 한국문화학교열어 운영하고, 재독한인동포이야기를 판극'우리들의 이야기'로 올렸다.

이제 내년인 2006년이면 20주년이 된다. 지금은 10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인 '한국인의 집'을 운영하여 루르지역 한인들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물놀이와 서예강좌가 개최된다. 현

재에도 한국민중문화를 지키고, 나누기위해서 열심히 땀다.

4.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 한민족 유럽연대

한민족유럽연대는 전유럽의 민주민족운동협의체 였던 민협이 외부의 탄압과 내부역량의 한계로 해체한 후 4여년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서 2001년 '새로운 희망과 전진을 위하여' 라는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결성되었다. 창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의 국내지향적인 운동을 지양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동포운동을 전개한다.
- 유럽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동포들의 단결과 권익을 옹호하며 다음세대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지원한다.
- 인종, 국적 그리고 이념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류평화, 그리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족단결을 지향하는 모든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한다.

한민족 유럽연대의 주요사업들을 소개한다.

1. 평화선언 촉구 사업

2004년 하반기부터 평화선언을 촉구하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벌여왔다. 2004년 10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운의 위기를 알리는 글들을 여러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남북이 공조하여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남북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활동을 벌임.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독일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같은 내용을 베를린 주재 북 대사관에도 전달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 촉구 서명운동의 전개와 병행해서 우리민족이 살아남을 길은 남북이 단결하여 외세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알려나가는 사업을 계속해 왔다.

2. 재외동포활동가대회에 한민족유럽연대가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매년 참가한다.

3. 타 단체들과 연대활동

6.15 공동선언실천행사를 다른동포단체들과 매년 공동추진하고 있음.

평화운동: 2004년 7월 9일 베를린에 있는 주독일한국대사관 앞에서 동포와, 유학생들, 그리고 타민족 반전운동가들과 함께 '한국군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열음

2005년 1월 22일 미국대통령 부시 방독반대 시위에 참가

송두울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송 교수가 독일로 다시 돌아온후 해제됨.

재영 한시연과 연대: 2004년 7월 30일- 8월 1일에 있었던 '재영한인시민연대'(한시연)의 발족식에 이종현 의장 참석, 앞으로 상호교류와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했음.

국보법철폐운동: 민주노동당유럽지부 등 교민들과 연대하여 '국보법철폐를 위한 유럽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2004년 12월 4일 베를린 브란텐부르크문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시위를 벌임. 국보법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약 300부의 서명을 모아 국내 '국보법철폐를 위한 국민연대'에 보냈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도발 규탄시위: 베를린한인회와 연대하여 동포 약 200여명과 함께 베를린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도발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임.

독일노조주최 독일이주노동자50주년 행사에 참석: 지난 6월 23일- 24일 독일의 최대노조

인 공공연맹(Ver-di)과 금속연맹(IG-metal)이 공동주최한 '독일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조합 활동' 워크샵에 한국의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실무자 두명과 함께 참석하여 통역과 안내를 하였다. 앞으로 한국의 이주민노동자들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연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평화축구 사업: 앞으로도 핵심사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평화선언' 축구사업을 추진해간다.

2. 제2차 재외동포활동가대회 참가(2005년 11월 1일- 4일)

한민족유럽연대는 재유럽동포운동탄압사례와 투쟁과 실천사례를 준비하여 발제한다.

3. 한국이주노동자운동 연대사업

2006년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15주년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온 동포들이 차별과 비인간적인 제도와 상황에서 투쟁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에 연대하여 바른 이주노동자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

- 연대방문단 조직
-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이야기 투쟁사례발표, 자료전시, 다큐상영.
- 독일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 비교



4. 창립 5주년 행사: 대중강연과 세미나

5. 유럽지역 연대사업:

재유럽오월민중제, 전태일열사추모제

맺는말

30여년간 조국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과 분열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국의 민주화, 민족통일을 위해 실천하고 투쟁해올수 있었던 것은 1894년 갑오농민혁명정신과 지금도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꽃처럼 살아있는 전태일 열사의 투쟁정신, 그리고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 지금까지 유럽동포들의 가슴속에 계승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재독한인동포사회는 군사독재의 잔재인 분열의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장에 뿌리내려 민주화를 실천하며 살아온 한인동포들이 지난 30여년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치유하는데 정부는 협조해야 하며 따라서 교민정책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